

## LA 10지구 출마 그레이스 유 “기도의 힘 믿는다”

“바른 정치로 주민들 목소리 시의회에 전달하겠다” 한인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투표’ 당부

오는 3월로 다가온 LA시의회 10지구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그레이스 유 후보가 한인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투표를 호소했다.

그레이스 유 후보는 “남가주 한인교계 목사님들과 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깊은 감사드립니다”며 “오는 3월 3일 예비 선거를 통과할 수 있도록 10 지구 한인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한인들의 유권자들의 등록 및 투표를 부탁드립니다”고 요청했다.

유 후보는 “한인타운의 70%가 포함된 LA 10지구를 위한 공공정책을 정확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LA 시의회에서 한인들 비롯해 아시아인을 대변하는 정치적 영향력과 바른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남가주 교협 성경회장과 목회자들도 그레이스 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LA 지역 한인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투표를 당부했다.

미주 성서화운동본부 송정명 목

사는 “미국 주류사회의 파트너로 성장한 그레이스 유 후보는 한인 사회의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준비된 1.5세 차세대 리더이자 신실한 크리스천”이라며 “LA 교계와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2015년 LA 10지구 시의회에 도전해 고배를 마셨던 그레이스 유 후보는 당시 약 30%의 득표율인 4,100표를 받아 아쉽게 패한 바 있다. 당시 웨스 시의장은 8,800여 표로 3선에 성공했다.

유 후보가 오는 3월 3일 예선을 통과해 11월에 있을 결선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약 8천 표 정도가 필요하다. LA 10지구 한인 유권자가 8천 5백 명,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한인들이 5천명에서 1만 명 가량이라 10지구에 거주하는 한인 유권자들의 결집과 투표가 당락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LA 10지구에 포함된 우편번호는 90004, 90005, 90006, 90008, 90010,



LA 10지구 시의회에 출마한 그레이스 유 후보가 3월 3일 예비선거를 위해 한인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했다.

90016, 90018, 90019, 90020, 90034, 90035, 90036이다.

그레이스 유 후보가 당선되면 LA 시의원 15명 가운데 세 번째 한인 시의원이 배출되며, 첫 아시안계 여성 시의원이 된다.

그레이스 유 후보는 “LA 지역 노숙자 문제와 저렴한 주택 공급 문제와 낡은 도로 등 지역 내 인프라 시설을 보수 및 확충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설,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에게 안전한 거주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생명비전교회 집사인 그레이스 유 후보는 3세 때 부모를 따라 이민 온 후 초·중·고·대학교를 LA에서 졸업한 토박이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거주 상원의원 보좌관, 비영리 법률봉사단체 아태변호사협회(APABA) 사무총장 등으로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해 왔다. 특별히 한미연합회(KAC)에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가량 봉사했었다. 김동욱 기자

## 美 샌더스 대선 후보, “민주당원은 낙태 찬성 필수” 발언 논란

“반낙태론자 당원들 공식 파문시켰다” 비판 제기돼

미 민주당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이 “민주당원이라면 당연히 낙태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0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뉴햄프셔주 콩코드에서 열린 ‘우리의 권리, 우리의 법정’(Our Right, Our Court) 포럼에 참석한 샌더스 의원은 MSNBC 진행자 스타파니 툴리에게서 “낙태를 반대하면서 민주당원이 되는 것이 가능

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민주당 내에도 소수의 낙태 반대론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샌더스 의원은 “지금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원이란 무엇인가?’를 논의할 때, 낙태 찬성론자가 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프린스턴대학교 로버트 P. 조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샌더스 의원의 발언은 낙태를 반대

하는 민주당원들을 공식적으로 파문시킨 것이다. 만약 당신이 낙태를 반대한다면, 당신은 수용되지 못한, 반감지 않은 존재이며 불합침입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샌더스 의원이 솔직함과 단도직입적인 면에서는 다른 경쟁자들보다 우월함을 보여주었다. 그는 원칙을 가진 사람이다. 다만 올바른 원칙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낙태를 반대하는 민주당원들에 대해 견해를 밝힌 민주당 대선 후보는 샌더스 의원 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티 허긴스는 “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페이스북

난 낙태를 찬성한다. 그리고 여성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나의 관점에서는 삶 속에

이러한 선택에 직면한 여성이 이 선택을 그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강혜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저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 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WORLD DAY OF PRAYER**  
**기도국 : 짐바브웨**

**2020 세계기도일예배**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한복음 5장 2-9절  
**Rise! Take Your Mat and Walk!**  
 세계기도일예배는 세계 180여개 나라의 교회여성들이 매년 3월 첫째 금요일에 함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초교회 연합예배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주제로 예배함으로 지구자전과 함께 2시간 여성들의 기도가 이어지는 예배입니다. 132년의 역사와 함께 인종, 문화, 성별, 빈부, 인간과 자연의 불화와 분쟁을 넘어 하나님 나라와 평화실현을 결단하는 예배입니다. 한국은 1922년 시작해서 1992년 김활란 선생님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1993년 이기는 힘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1997년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듯이란 주제로 예배문을 작성하여 전 세계 교회여성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문 작성국: 짐바브웨

**일시** 2020년 3월 7일 10시  
**장소** 인랜드교회 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  
**주최: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TEL 562-569-9133  
 Korean Church Women United USA E-mail Kathyuu1114@yahoo.com

# 故 이응호 장로 “성결교회의 큰 별, 역사가 되다”



故 이응호 장로 천국환송예배에서 조문객들이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유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예성 부총회장, 성결교 장로회장, 성결대 이사장을 역임하며 성결교 발전의 기틀을 닦은 故 이응호 장로(향년 93세) 천국환송예배가 지난 7일,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교단장으로 거행됐다.

1926년 평안남도 평원에서 출생한 이응호 장로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명지대 명예교수, 성결대 석좌교수 등 교육자의 길을 걸으며 성결교회 역

사와 함께 했다. 또한 한글학회 이사,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이사로 한글 사용과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고인은 성결교회 청년회 전국연합회장을 역임하고 특히 학교법인 성결대학교 이사 및 이사장으로 20여 년 동안 봉직하며 성결교회 발전에 힘썼다. 또 WCC 지지와 반대로 예성과 기성으로 분리된 성결교단에서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부총회장과 전국장로연합회 회장으로 그

렇게 섬기며 80여 개 교회만 남은 예성 교회를 1천2백 개 교회로 성장시키는데 크게 공헌했다.

교단 통합을 소망했던 고 이응호 장로의 바람처럼 2001년에 예성과 기성이 양 교단 연합체인 '한국성결교회연합회'를 출범시키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고인은 성결교회 역사를 편찬하고 그동안 소장해 온 성결교회의 모든 역사자료를 교단과 후학들을 위

해 총회에 기증했다. 예성 총회는 고인의 헌신에 부응하고자 새로 건립될 사중복음 회관에 성결교회 역사관을 만들기로 했다.

고인의 천국행을 환송하기 위해 모인 조문객들은 “고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불의와 싸우고 정의를 추구하셨다. 특별히 해방 이후 광장히 어려웠던 성결교단을 지키고자 힘썼고, 학교 건축과 교수진 유지 등 성결대학교 초창기 교육 토대를 마련하셨다”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누구보다도 성결교회를 사랑하셨다”고 회고했다.

이날 예배는 박용덕 목사(전 예수교미주성결교회 총회장, 남가주 빛내리교회)의 집례로 최성균 목사(전 예수교미주성결교회 총회장)가 기도하고 장인관 목사(성결대학교 미주서부 동문회장)가 성경을 봉독했다.

성결대학교 미주서부 동문회의 조가에 이어 송정명 목사(전 미기총 대표회장, 미주평안교회 원로)가 “달려갈 길을 잘 달린 중”(딤후 4:6-8)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잔 강 목사(예수교미주성결교회 미국서남지방회장, 남가주 새인약교회)가 조사를 낭독했다. 축도는 전 성결대학교 총장 성기호 목사가 했

다. 송정명 목사는 “고인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셨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과 신앙의 모범이 되셨다”며 “성결교회를 위해 힘써 일하셨을 뿐 아니라, 한글 보급에도 앞장섰던 한 시대의 큰 스승이었다”고 기억했다.

송 목사는 “고인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사역하셨고,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성실히 완수하셨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고인의 희생적 섬김은 수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감동과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조사를 전한 잔 강 목사는 “고인은 성결교회의 큰 별이셨고, 큰 획을 그은 인물이었다”며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하고 교단 통합을 원하고 지지하셨던 뜻이 언젠가 이뤄져 예성과 기성이 하나 되어 사중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소망했다.

고인을 기억한 차남 이영석 장로는 “부친께서는 아무리 바빠도 저녁 9시 전에는 가정예배를 드리는 신실한 아버지였고, 삶과 말씀이 동일했던 훌륭한 신앙인이셨다”며 “지금도 가정예배의 전통을 이어받아 성경통독의 귀한 유산을 누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동욱 기자

## 남가주 한인교회, 김지연 대표 초청 '성경적 성교육 세미나' 개최



김지연 약사(한국가족보건협회 상임대표)

미국 서부 주요 한인교회 중 심으로 성경적 성가치관 확립을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가 '성경적 성가치관과 그리스도인(A Biblical Perspective on Human Sexuality & Christian Attitude)'을 주제로 강의하는 이번 미주서부 한인교회 순회세미나는 2월 12일(수)부터 22일(일)까지 진

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베델교회 등 서부 지역교회와 CHTV크리스천헤럴드,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및 (사)한국가족보건협회의 협력으로 진행되며, 올바른 성경적 성교육의 방향성 및 음란물과의 전쟁, 미디어 앞에서의 정경, 동성애 법제화와 그리스도인의 자세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순회 성경적 성가치관 세미나는 22일 수요일부터 열마인 온누리교회를 시작으로 베델교회, 열마인 온누리교회, 감사한인교회, LA 사랑의교회, 은혜한인교회, 남가주 사랑의교회, CHTV 크리스천헤럴드, 미주장로회신

학 대학교에서 총 2주간 진행된다.

김지연 대표는 “귀한 시간을 계획하신 하나님과 미주의 교회에 감사를 드린다. 베델교회 등 남가주다음세대지킴이 사역에 열심인 교회들이 함께 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남가주다음세대지킴이 소속의 한 현지 학부모는 “서부 한인 교회 사회에서는 거의 처음 있는 대규모 성경적 성가치관 세미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성도들이 기대하고 있다. 일부 성도는 세미나 참여를 위해 선약을 취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경호 기자

## 남가주 성결교회 원로장로회 3대 회장 조승민 장로 선출



시온 성결교회에서 개최된 기독교 미주 성결교회 남가주 원로장로회 총회

기독교 미주 성결교회 남가주 원로장로회는 지난 2일, 시온성결교회(담임 최경환 목사)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제3대 원로 장로 회장으로 조승민 장로(오렌지 중앙교회)를 선출했다.

2013년 발족한 원로장로회는 초대 회장으로 하기연 장로가, 2대 회장으로 최대영 장로가 섬겨왔다. 원

로장로회 회원 자격은 장로 장립 10년 이상, 개교회 시무 봉사 7년 이상된 장로로 사무총회를 거쳐 원로 장로가 될 수 있다.

이날 총회는 북한에 억류됐던 김학송 선교사의 특별 간증 후 시온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만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인규 기자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org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2년의 노하우** 1-20 자격신청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213)531-7215, (213)833-8208  
 2975 Wilshire Blvd., #B01., LA,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ICS)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온라인교육 세팅 및 운영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시민권 취득
- 추방 재판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44

“팔레스타인에서 온 편지를 읽고”

필자는 지난 1월 3주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돌아온 지 약 일주일 만에 팔레스타인 선교사에게서 받은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단기선교는 계속되는 겨울철 폭우로 인해 추위 속에서 선교활동을 하였다. 어느 날은 폭우를 맞으며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외버스를 몇 번 갈아타면서 팔레스타인 웨스트뱅크 북부에 있는 나블루스 지역을 갔었다. 나블루스는 골짜기로 들어가면서 오른 쪽 지역은 에발산, 왼쪽 지역은 그리심산이 위치한 도시다. 우리 팀(3명)은 에발산 쪽으로 가정방문을 목적으로 발길을 옮겼다. 겨울비는 거센 바람과 함께 주룩주룩 내리는데 우리는 에발산 정상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

올라가는 중 2 가정이 우리를 보고 들어오기를 청하여 잠시 들 어갔다. 여행지도 아닌 시골 마을에 들어온 낯선 동양인 방문자들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다. 따뜻한 차 대접을 받고 우리는 크리스천이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노라 하면서 대화를 시작했다. 한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하였고, 다른 가정도 그날이 마침 금요일(그들에게 안식일)이라서 곧 모스크에 가야 한다고 일어섰다. 그런 아쉬움 속에서 몇 시간에 걸쳐 에발산 정상에 올라 찬양을 부르고 이사야 말씀을 나누고 함께 그 땅과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예배를 올렸다. 겨울비는 에발산에서의 그 예배를 잊지 못할 것이다. 예배 후에 우리는 다시 산을 내려가며 산비탈에 사는 주민들의 집들 쪽으로 향했다.

오전에 출발해서 산을 오르고 예배드리니 오후 4시가 넘어섰다. 산간지역이라 어둠이 일찍 오는 것 같았다. 그렇게 내려오다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우리가 지나가는데 어떤 집 문이 열렸다. 나오던 한 청년과 눈이 마주쳤다. “뭉किन 합맘(화장실 좀 사용해도 될까요?) 하기도 전에 그 청년이 어서 들어오라고 우리를 적극 청했다. 그렇게 추위에 떨던 우리들은 그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얼른 물을 끓여 홍차를 내왔다. 홍차가 주위를 가시게 해주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집에 혼자 살고 있었다. 약 한 달 전까지 부모님이 같이 사셨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뇌졸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중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는 슬픔으로 그 집에 있지 못하여 건너편 그리심산 쪽에 사는 형제들 집에 가 계신다고 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아이살’이고 나이는 36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남달라 어머니가 주무시던 침대 그이불을 덮고 지금까지 지낸다 했다. 슬픔이 커서 홀로 식음도 거의 전폐하고 외출도 안 하고 한 달 만에 갑자기 비가 와서 대문을 열고 싶었다. 그렇게 열었는데 놀랍게 동양인 여행객들이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직업은 집에서 공예품을 만들고 벽화를 그리는 공예 아티스트였다. 집안에 가득 찬 가구들, 침대 세트들을 제작해서 판다 했다. 수입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고 생활하기에 괜찮다 했다. 아이살 청년의 모친을 잃은 아픔을 우리 팀원 중 한 분도 얼마 전 어머니를 여윈 분이 있어서 같이 울면서 서로 위로했다.

그렇게 대화를 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 그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 사건 등 계속되는 복음 선포에 그 청년은 귀 기울이고 있었다. 마지막 영접 기도를 같이 따라 읽는 것까지 하였다. 그렇게 밤이 무르익고 우리는 그 청년에게 이 지역에 사는 우리 친구를 소개하였다. 그 친구에게 아이살의 연락처를 남겨서 그 친구와 교제하게 하고 싶다 하였다. 그 청년은 흔쾌히 수락하고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주었다. 밤이 깊었을 때 우리는 작별을 하였다. 그리고 선교사에게서 연락이 온 것이다. “목사님! 아이살 형제를 이선교사가 재방문하여 교제하였고, 베들레헴 주일 예배에 초대하였는데 지난 주일 그 형제가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아이살이 보고 싶다고 전합니다.”

이 글을 읽는 내 눈은 뜨거워졌다.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신종 바이러스와 행복 바이러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문학 작품 중에 전염병에 관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작품들 중에 포르투갈 출신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가 눈에 띕니다. 주제 사라마구는 늦게 문학에 투신한 작가입니다. 그의 출세작 ‘수도원의 비망록’은 그가 60세였던 1982년에 출품했던 작품입니다. 결국 이 작품으로 1998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됩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는 주제 사라마구의 작가적 상상력과 탁월한 묘사력이 결합된 작품입니다. 사라마구는 이 소설을 통해서 예방책이 없는 신종 전염병으로 큰 혼란을 겪는 도시에서 인간들의 탈 윤리성과 인간의 야수성을 섬세하게 그려 내고 있습니다. 주제 사라마구는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세계 문단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그를 세계적인 작가로 굳건히 세워 주었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의 대략적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운전을 하던 한 남자가 신호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시력을 잃습니다. 다행히 그는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지만 대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눈먼 남자를 집으로 데려다준 사람도, 눈먼 남자의 아내도, 눈먼 남자가 찾아갔던 안과 병원 의사도 모두 시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치료받았던 병원의 환자들도 시력을 잃습니다.

이런 현상이 확산되자 정부는 이백색 실명 현상을 전염병으로 여기고 ‘눈이 먼 자들을 모두 격리 수용소로 보내는 결정’을 합니다. 모든 눈먼 사람들이 격리 수용소로 보내질 때 병원 안과의사도 격리 수용소로 갑니다. 의사의 아내는 실명하지 않았지만 남편을 지키기 위해 남편과 함께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그녀

는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유일하게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수용소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목격합니다. 그녀는 헌신적이고 책임감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그녀가 목격하는 수용소 안 상황은 처참합니다. 점점 시각장애인 늘어나고 병동에서는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똥오줌도 제대로 가리지 못해서 여기저기 오물이 넘칩니다. 결국 군인들도 눈이 멀어지고 지키는 자가 없는 수용소에서 눈먼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옵니다. 수용소를 나온 눈먼 사람들은 도시를 헤매며 음식을 찾으러 다닙니다. 눈먼 사람들의 암흑은 염치와 윤리를 짓밟게 버립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옷을 벗고 다니고 아무 데나 배설합니다.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는 통제되지 않는 전염병의 파괴력과 공포를 섬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위협하는 전염병의 공포가 고스란히 표현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읽노라면 소름 돋는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근자에 여러 전염병을 경험하며 상처를 받습니다. 현재의 신종 바이러스를 통해서 느끼는 공포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는 눈

먼 인간의 양심과 윤리를 지적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양심 그리고 문명의 한계와 약함을 보여줍니다. 도덕과 책임의식이 무너진 사회의 실상을 통렬하게 고발합니다. 아울러 문명사회가 가진 천박한 윤리식에 야유와 조롱을 보냅니다.

나아가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는 전염병 현장에서 빛나는 헌신과 섬김의 가치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아내는 자신도 감염될 위험을 무릅쓰고 수용소에 들어가 눈먼 자들을 돕는 헌신은 놀랍습니다. 그녀와 함께 고통 중에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며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은 어느 날 눈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만들어 가는 희망의 이야기는 감동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상에 처음 알린 의사 리원량의 사망 소식과 함께 그가 남긴 감동 스토리가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는 신종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세상에 알렸는데 중국 당국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신종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자 그에 대한 처벌이 해제되어 병원으로 복귀합니다. 그는 마스크 등 보호 장비도 없이 환자를 돌보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숨졌습니다. 슬프지만 찬란한 아름다움이 가득한 사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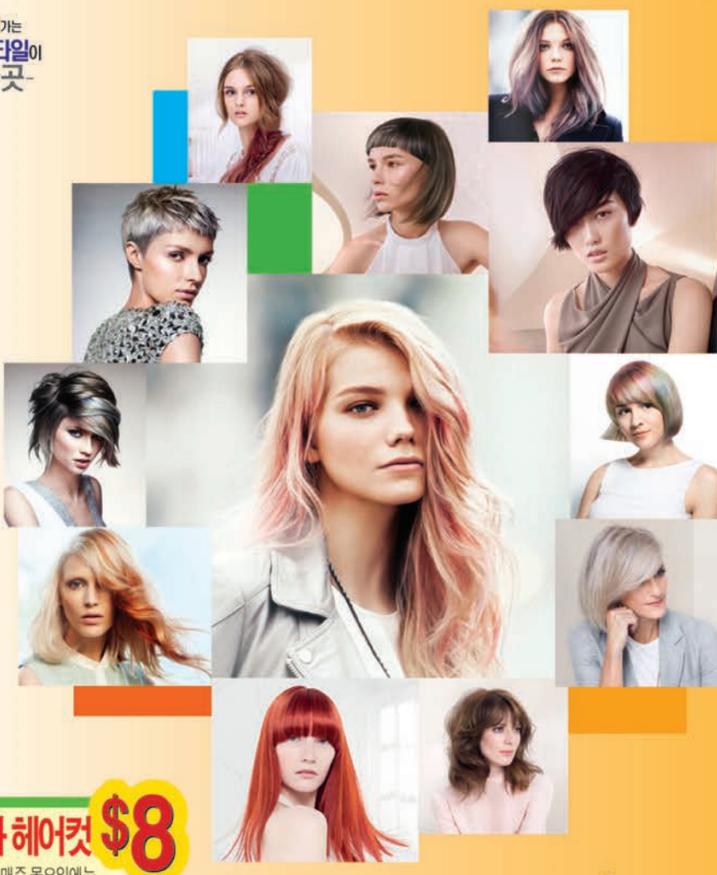
반면에 슬프고 아픈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미심쩍고, 한국 정부는 무책임한 듯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당분간 확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지점마다 비겁하고 치졸하고 무정한 ‘눈먼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사랑과 헌신과 용기로 장식된 ‘행복 바이러스’가 피어나 전염병을 이길 것이고 훗날 역사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행복 바이러스 이야기를 남기리라 믿습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종준,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up \$20 up  
\*단, 칼라만 하시면 \$40\*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관리한 실제 사진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 김경진 목사 “개척 3년간 한량없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 경험했다”

## 기쁜우리교회 창립 3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은퇴·임직예배, 총 29명 직분자 세위



창립 3주년을 맞은 기쁜우리교회



나성영락교회 박희민 은퇴목사가 축도했다.



기쁜우리교회 창립 3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은퇴·임직예배 기념촬영



김경진 목사가 김인환 추대 장로에게 임직패를 전달하고 있다.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는 지난 9일 창립 3주년을 맞아 은퇴 및 임직예배를 드리고 시무 장로 4명, 시무 안수집사 5명, 시무 권사 15명, 추대 장로 5명 등 총 29명의 직분자를 세웠다.

이날 교회의 온 성도들은 이전 날의 상처와 모든 아픔을 험차게 딛고 일어나, 내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해 전진하기로 결단했다. 또 은퇴한 시무장로 2명, 은퇴 시무 안수집사 1명, 은퇴 시무권사 7명에게 큰 박수를 보내며 그동안의 섬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

했다. 김경진 목사는 “기쁜우리교회 개척 후 지난 3년 동안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신 임직자들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하나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로 나아가겠다”고 선포했다. 김 목사는 또 임직자들을 향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품소 실천

하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영혼 구원에 앞장서길 바란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과 삶의 모범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라”고 당부했다.

이날 창립 3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은퇴·임직예배는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가 “나는 따르리이다”(눅 9:57-62)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베델교회 김한요 목사가 권면과 축사를 전했다. 나성영락교회 박희민 은퇴목사가 축도했다.

진유철 목사는 “복음의 메시지를 앞두고 그치지 않고 믿음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과 믿음과 섬김의 분이 되는 임직자가 되라”고 주문하고 “문제가 많은 이 땅의 삶 가운데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과 헌신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한요 목사는 “교회 직분자들은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흔들림 없이 헌신하고, 성도들은 앞에서 수고하는 직분자

들을 위해 기도와 격려로 응원해 달라”고 권면했다. 임직자 대표로 담사를 전한 김원국 장로는 “게으름 없는 부지런한 자세로 교회를 섬기며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겠다”며 “뛰어난 능력이 처세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성령의 음성에 의지하면서 맡겨진 직분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소망 소사이터, 제 5차 차드비전트립 파송예배 기념촬영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어티(이사장 유분자)는 생명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10일, 50

## 아프리카 차드에 한인 사랑 전한다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프리카 차드에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제5차 차드 비전트립을 위한 파송예배를 드렸다.

파송예배에서는 김도민 목사(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가 “나눔의 삶”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김창곤 목사(포도원 교회)가 기도했다. 또 2018년 4차 차드 비전트립에 참여했던 오드린 이가 대학생으로 처음 아프리카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나눴고, 비전 트립 황치훈 단장이 비전트립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기도 후원을 부탁했다.

유분자 이사장은 소망 우물 홍보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미주 중앙일보의 정구현 선임기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한편 소망 소사이터는 차드를 중심으로 소망 우물파기, 소망 유치원 건립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12개의 우물 후원금

을 접수해 우물파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작년에 건립한 소망 학교를 비롯해 총 5개의 유치원을 건립해 차드의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오는 2월 15일(토)부터 22일(토)까지 차드를 방문하는 비전트립은 그동안 건립된 우물과 학교들을 돌아보고 400호 기념 우물 시추도 할 예정이다.

## Aqua-culture Ginseng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 최고의 약재로 인정한 인삼(人蔘)

# 물에서 재배하는 수경재배인삼

### ■ 수경재배 인삼 (Aqua-culture Ginseng) 이란?



인삼을 기존 방식처럼 노지에서 재배하지 않고 12 ~ 18개월 사이에 어린 삼(묘삼)을 수경재배 용기에서 재배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화학비료와 농약을 공급하지 않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인삼의 총사포닌은 잎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나 노지 인삼은 농약문제로 인하여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수경재배 인삼은 인삼 전체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뿌리부분만 섭취하는 노지 인삼 대비 훨씬 더 많은 사포닌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 ■ 인삼의 효능

인삼속에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사포닌 성분인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는 암세포 증식 및 전이억제, 간 보호 작용, 면역 기능 강화 작용 등으로 인해 예로부터 최고의 약재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Rh2 및 진세노사이드 Rg3 성분이 면역력 강화에 좋은 NK 세포 활성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것으로 밝혀져 더욱 더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백효과가 있는 진세노사이드 F5 함유  
320가지 잔류 농약검사 통과

면역체계활성 항박테리아, 항암항상성유지 등 면역력 강화에 탁월  
바이러스 증식 및 지방세포 생성을 억제하는 사포닌 성분이 뿌리의 7배

### 수경 재배 인삼의 효과

1. 면역력 증대로 일상의 활력 증진
2.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준다
3. 피로 개선
4. 항산화에 도움

### NK 세포란?

NK세포는 자연 살해(Natural Killer)세포라고 불리는 백혈구의 일종이고 체내에 종양, 세균, 바이러스 등이 침투했을 때 강력하게 대응하는 면역세포입니다. NK세포는 상대세포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세포인지 아니면 돌연변이 혹은 외부세균인지 스스로 인지하고 공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K세포를 우리 몸의 1차 방어세포라고 부르기도 한다. NK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해 암세포의 발생과 증식, 전이를 막는다는 것 이외에도 암이 재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암 줄기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대리점 및 총판모집

KM Global KM 한국 010-7191-6597 미국 818.200.3807.213.434.1170

066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 5층



# 전도자의 자질과 사명의 성과 2

디모데후서 4:1-8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그리스도인(Christian)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조건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택함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그 시간부터 우리의 시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전의 생활을 되풀이할 수는 없고 이제는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주님의 남은 뜻에 참여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기 위하여 사는 생애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그 사람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영터리라는 생각이 들면 결국은 주의 영광을 가리우고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그러니 우리가 잠시도 잊어서는 안될 사실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함으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항상 잠든 시간 외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생활 자체가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 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누가 보든 안보든, 알아주든 말든 하나님 앞에 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경건하며 근신하는 태도를 취하고 거짓을 도모하지 않으며 불의와 죄악을 일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자신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듣는 자들만이 그렇게 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의 호칭이 붙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은 죽은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23:13에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고 말씀하시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리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지도자라는 입장에서 행세하고 대접받기만을 좋아하지 말고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죽은 교훈을 선포하는 지도자를 만난다면 필시 죽은 믿음을 가꾸어 가게 될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산 믿음을 가꿀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남을 가르치며 책망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걱정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권징이 없어져서 교인들의 신앙이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권징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교회 문을 나서면 사방에 다른 교회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괜히 사람의 비위를 건드려 다른 교회로 가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교인들의 눈치를 살피고 그들의 종교를 하느라 교회 안에서 진리가 묵살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12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

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자질, 영감적인 신앙체질로 거듭나야 하나님 앞에 내세소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양떼의 죄 된 생활을 알면서도 지적하고 책망하지 못하는 것은 이를 가르치는 지도자마저도 그들과 같은 처지의 생활을 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떼를 지적하고 책망했다가는 그 화살이 자신에게로 돌려질까 봐 지레 겁을 먹고 책망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신앙이 잘못되고 말버릇이 나쁘고 행동하는 것이 타인에게 부덕을 끼치고 목회에 지장을 주고 있어 불려서 야단도 치고 책망을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분발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소망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언제 예수님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목자의 입장에서라도 자기 불려 가서도 최선을 다해 부끄럽지 않은 자격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가게 해야 하는 사명으로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책임목회라는 목회자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맡겨진 양떼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단 한 가지 목적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올바른 회개를 통하여 저주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을 지만 생각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양심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이끌리는 생활은 어떤 원수 마귀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28-29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신앙중심과 자제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일지할 때는 절대로 마귀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악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쓰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대 걸고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 드리는 과정에서 복음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34이하에 계명 중에 어느 계

명이 가장 큰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자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하신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에게 열 가지 계명을 주셨지만 예수님 이후 은혜시대는 위의 두 가지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입장을 기꺼이 희생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꾸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행동화 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부담을 더 많이 지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행동으로 나타내 보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난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보살피 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길을 떠났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본받아 사는 모범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은 내 중심에 모신 예수님을 내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내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13-18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중략)... 나를 관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했습니다.

일꾼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데 자기 일에 더 힘쓰게 되면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4에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게로 인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우쭐대며 행세하려다 보니 은혜 분위기는 사라지고 순진한 심령들이 위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임을 알면서도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그곳으로 달려가질 못하고 편지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도 걱정이 되어 자신이 간 것과 같이 그곳을 위해 일해 줄 믿음만한 사람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사도바울은 빌립보서 2:19-22에서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앎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으리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고 디모데만이 이 일을 위한 적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순교적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해왔기 때문에 사심이 없습니다.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로 가서 그 교회를 수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의 성과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책망하고 권면하는 일에 성과가 있었던 것은 디모데가 보여준 신앙행적이 그들에게 모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같은 신앙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말과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오후4시30분/동부오후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토요일 서부오후 6시/동부오후 9시		AM1310 기본소리방송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통증탈출 양자칩

##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 양자 깔창

## 양자 파동 에너지 쿠션 족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할,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 1) 족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 2) 은 : 항균, 항취 효과
-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게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영구적으로 나옵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Tel. (213)703-0240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 PRESIDENTS' DAY SPECIAL SALE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능



## NEW 2020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0,0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 NEW 2020 HYUNDAI SONATA SE

Lease **\$188** +Tax **0 Down** **\$26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3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 NEW 2020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 NEW 2020 HYUNDAI SANTA FE SE

Lease **\$218** +Tax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7,1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http://www.phhyundai.com)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작은 교회를 위한 부흥 성경회 섬김 사역

# 작은 교회를 위한 부흥 사경회 섬김 사역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유일한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힘입어 섬기고자 합니다. 사례비, 교통비의 비용을 자비량하며 섬기고자 하오니 혹시 집회가 필요하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일정을 조절 하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개척 37년목회 원로목사  
KAPC(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중경 총회장  
현, 중남미 선교 회장,  
유튜브 방송(복음 채널) 방송선교

연락처  
**김상덕 목사**  
T.(714)213-1342  
sangdkim@yahoo.com



## 침신대 미주총동문회 회장에 심윤수 목사 선출



남가주 살롬선교교회에서 2020 침신대 미주총동문회 및 세미나가 진행됐다.

### 2020침신대 동문대회 및 세미나 남가주에서 개최

한국 침례신학대학교(총장 김선배 교수) 미주총동문회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남가주에 소재한 살롬선교교회(담임 김영하 목사)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자!”라는 주제로 2020 침신대 미주총동문회를 개최하고 신임 동문회장으로 심윤수 목사, 부회장에 김영하 목사, 총무에 김민수 목사를 선출했다. 또한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동문대회’ 명칭을 ‘동문선교대회’라고 변경하기로 했다.

신임 회장 심윤수 목사는 “미주 침신 동문들의 원활한 목회 지원과

개교회의 부흥과 연합을 위해 힘쓰고자 한다”며 “임기 중 모교 방문과 성지순례와 같은 시간을 마련해 목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심윤수 목사(예수중심, GA)의 사회로 진행된 총동문회 개회예배는 정해관 목사(주님의영광, AZ)의 기도, 김주현 사모(남가주늘사랑)의 특별찬양에 이어 이성권 목사(신시대타능력, OH)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이성권 목사는 ‘기도를 통한 부흥’, ‘성령을 통한 부흥’, ‘전도를 통한 부흥’ 등을 설명하면서 “미주 한인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부흥의 역

사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성령, 전도의 부흥을 체험해야 된다”며 “침례신학의 역사와 영성을 통해 이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동문회는 침신대 동문목회자들에게 교제의 시간이 더해져 권석균 목사가 “성령 안에서 이 미지로 설교하라”(들려주는 설교, 보여주는 설교), 최국현 목사가 “자기 경영”(21일 습관으로 변화되는 삶), 김민수 목사가 “시편에 나타난 기도”라는 주제로 유익한 강의가 이어져 참석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김동욱 기자

##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젊어지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기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N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전화 **213.434.1170**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사우스베인한인목사회 2월 정기예배 사우스베인한인목사회(회장 브라이언 장 목사)는 남가주기쁨의교회에서 2월 정기예배를 가졌다. 사우스베인한인목사회는 4월 부활절 연합예배와 5월 구국기도회, 차세대 어린이들을 위한 가을 집회 등 2020년 계획을 점검했다.

## 한인가정상담소, 한인 종교지도자 대상 가정폭력 전문가 양성

### 40시간 가정폭력 전문 종교지도자 무료 교육 실시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 조)는 오는 3월 2일(월)부터 3월 30일(월)까지 5주간 매주 월요일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40 Hour Domestic Violence Advocate Training)’을 실시한다. 한인종교지도자(목사, 전도사, 사모, 신학생)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할 예정이다.

교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총 5일 동안, 40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가정폭력 개요와 역사 ▶아동학대와 영향 ▶청소년 데이터 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 대책

및 평가 ▶이민법 및 기소법 등 법률적 지원 ▶피해자 상담과 리소스 등이 주된 교육 내용으로 이뤄진다.

한인가정상담소 카니 정 조 소장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한인종교지도자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본 교육을 통해 건강한 한인가정과 한인 이민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힘을

모으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후원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 교육신청 및 문의는 mlee@kfamla.org로 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8살~18살)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샷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상배 챔피언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T:(310)749-2522

## CMF 선교원 페루 리마에 하나님 비전 심어



CMF 선교회 2월 선교사 예배 및 정기모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MF 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김철민 대표를 비롯한 8명의 선교팀이 페루 리마에서 선교사 자녀(MK) 수련회와 한방 사역, 미디어 복음사역을 펼쳤다.

31차로 진행된 MK 수련회는 선교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고 부모의 선교 사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선교사

자녀들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사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기도 했다.

또한 현지인과 한인 40여 명에게 침으로 치료해 주며 이웃사랑을 전했고, 현지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에게 SNS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지난 8일 진행된 CMF 선교회 2월 선교사 예배는 김철민 대표

의 사회로 제프 김 영국 선교사가 기도한 후 정우성 목사(남가주 광업교회)가 “다섯 가지 기도제목”(민 6:22-26)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엄명민 목사(Mission Blessings), 하대식 선교사(요르단), 김창곤 목사(포도원교회), 방익수 목사(사랑의 방주교회)가 간증을 하고 채형병 목사의 인도로 합심 기도 후 채형병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 역사적인 제1회 미주성결교회 동남부 지방회 열려

## 사중복음 세미나로 성결교단의 기본 교리 다져



미주성결교회 동남부 지방회

미주성결교회(총회장 김용배 목사) 동남부지방회가 3일(월)부터 제3회 미주 목회사 사중복음세미나와 병행해 6일(목)까지 애틀랜타벤엘교회(담임 이혜진 목사)에서 열렸다.

지난 10년간 눈에 띄는 양적, 질적 성장을 경험해 온 동남부 지방회는 기존에 속해있던 중부지방회에서 독립해 임시지방회와 임원회의 등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역사적인 첫 지방회를 갖게 됐다.

신임 임원진에는 지방회장 안선홍 목사, 부회장 이병익 목사, 장로부회장 이형호 장로, 서기 이철호 목사, 회계 이혜진 목사, 부서기 지윤병 목사, 부회계 국승호 목사, 감찰장 장석민 목사 등이다.

3일(월) 제1회 동남부지방회는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회의, 폐회예배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예배는 장석민 목사가 설교를 전했으며, 성찬예식 이후 최낙신 원로목사의 축도로 마무리 됐다.

지방회를 시작하기 앞서 안선홍 회장은 참석자들에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요청하며, 첫 지방회 뿐 아니라 앞으로 도 회의가 이끌어가는 지방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지방회가 되길

다 함께 간구했다.

미 동남부 지역 성결교회의 산 증인이자 원로인 최낙신 목사는 “그동안 성결교단을 세우셔서 큰 나무로 성장시켜주셨는데, 동남부 지방회라는 새로운 가치를 더해주시며 감사하고 기쁘다. 앞으로 그 가치가 계속 번성하고 번영하게 될길 기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1세기 파워 목회, 사중복음 목회의 재발견’을 주제로 한 세미나 주강사로 초청된 최낙신 교수(서울신학대학교 글로벌사중복음연구소장)는 “이렇게 뜻 깊은 역사적인 동남부 지방회 출발에 함께 하게 되어 감사하다. 성결교회의 소중한 자산이자 전도표제인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 복음을 연구해 온 신학자로서 목회 현장에 있는 분들과 나누게 되어 기대가 크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23명 정회원 가운데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지방회는 회순통과, 신입회원소개, 임원소개, 각 지역교회 사역보고, 각부 조직보고 및 예산안 심의, 차기 지방회 장소 및 일시 결정 등이 있었으며 폐회예배로 마무리 됐다.

아틀란타=앤더슨 김 기자

# NCKPC 새 사무총장에 이유신 목사 선임

PCUSA 내 한인교회들의 연합체인 NCKPC 새 사무총장으로 이유신 목사가 선임됐다.

NCKPC 사무국에 따르면 그동안 사무총장으로 섬겼던 박성주 목사가 연금국에서 일하게 됨에 따라 1월31일자로 NCKPC 사무총장직을 공식 사임했고 이에 임원회는 이유신 목사를 새 사무총장으로 결정, 남은임기 동안 사무총장을 맡게 된다.

중경 사무총장인 이유신 목사는 1999년부터 11년간 NCKPC 사무총

장을 역임하다 2010년 은퇴했다.

또 NCKPC 임원회는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월 협동총무로 보선된 김응배 목사를 웹관리와 공문발송 담당자로 결정했다.



이유신 목사  
뉴욕=김대원 기자

# 청교도 이민 400주년, 애틀랜타의 부흥을 기대한다

## 400주년 기념예배 및 미국교회 부흥사 특강 준비



교협 임원진이 청교도 400주년 기념행사를 설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회장 남궁전 목사)가 청교도 이민 400주년을 맞아 기념예배 및 미국교회 부흥사 특강을 준비했다. 강사로는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용규 교회사 교수가 나선다.

이를 소개하기 위해 지난 7일(금) 기자회견을 개최한 남궁전 회장은 “올해 교협의 모토가 ‘신나는 교회, 행복한 세상’이다. 이를 위해 고민하던 중 미국 신앙의 핵심인 청교도 이민이 400주년을 기념하고 미국 부흥사를 돌아보며 애틀랜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흥을 꿈꾸며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궁전 회장은 “강사에게 연락을 해보니 때마침 안식년으로 일정을 맞출 수 있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넘치도록 주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백성봉 부회장은 “청교도 이민 400주년이 가지는 영적 의미가 굉장하다. 미국의 1,2차 각성운동을 비롯해서 부흥의 맥을 짚어보며 애틀랜타에도 그 부흥을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틀란타=앤더슨 김 기자

# 교회 및 신교회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 삶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수,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일화처럼 순결하고 스나우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 주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9:00  
토요일침례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셔널) 오전 9:30  
3부예배(자세대에) 오전 11:30 \*한양사각 예배 15분 전  
대학청년부 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수)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기장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en 교차)  
T. (213) 386-2233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6가와 카밀라),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에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일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에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 4블럭)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에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유초등부 오후 10:30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M예배 오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전 12:30  
청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에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가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0:50 중보기도 (목) 오후 1:00  
원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정병남**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820-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건너 4블럭)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에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후 12:30

**노영호**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영양기상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6-0685 www.lasaehan.com

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에 오후 7:30  
영유아부 유초등부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8:30 EM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에 오후 7:30  
중고등부 오전 10: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유치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00

**곽건섭** 담임목사

**에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 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에 오후 8:00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00

**박은종**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9:3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금요일에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ew@hotmail.com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에델먼(분당) (소예배실)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믿음, 공,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에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아동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김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323) 383-4951 / 4952 F. (213) 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천 초 정심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에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에 오후 8:00  
유치부 유년부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청년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성령의 진리로 깨어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힘쓰는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jc.church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신도모이기 민방부 지역 연합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90057  
T.(213)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령으로 새롭고 함께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30(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스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유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 5:30(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查经班: 周二 晚上 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주일예배 오전 9:00(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00(본성전) 매일QT-월-금 오전 6: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1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묵**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말씀(도회/미리미리)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토)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립부 오전 8:45(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돋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양청년회 오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n.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절친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곽덕근** 담임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MP세움 **최 혁** 담임목사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5일 주일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후 1:30  
9일 주일예배 오전 7:45  
186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56  
186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56  
Tel: (818)363-5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 트럼프 “위대한 미국, 신앙의 결과” ... 美 국가조찬기도회



미국 워싱턴DC에서 지난 6일 제68회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렸다. ©백악관 제공

## 아서 브룩스 교수, 용서와 관용의 메시지 전해

미국 제68회 국가조찬기도회가 워싱턴 DC에서 6일 열렸다. 이 자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정치인들과 교계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기도회 기조연설을 맡은 하버드 케네디학과의 아서 브룩스 교수는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다. 브룩스 교수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다”면서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사회를 분열시키는 ‘경멸과 양극화’다. 이 오래된 문제에 관한 새롭고 효과적인 해결책은 ‘다르게 생각하기’다. 신앙인들에게는 위기가 국가를 성장시키고 시민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고 강조했다.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묻고 싶다. 도덕적 용기는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맞서는 것이 아니다. 멸시하는 습관을 어떻게 깰 수 있는가? 어떤 이들은 더 많은 공손함과 관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셨다. 적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미움에 반응하라. 이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또 멸시를 거부하겠다고 다른 이들에게 약속하라”고 권유했다.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위대한 일을 해냈다.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고 기적과 같은 일을 이뤘다. 이처럼 이 나라가 이룬 경이로운 일들은, 미국인들의 기도와 신앙의 결과”라고 말했다.

브룩스 교수는 이어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겠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고 적을 미워하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이 말씀을 오늘날의 양극화 사회에 적용하려면 개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의 부모님은 독실한 신앙인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그는 그러나 자신을 탄핵한 민주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의식한 듯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번영한, 인종과 종교를 차별하지 않는 포용 국가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그동안 우리는 지옥을 겪었다. 오늘은 축하의 날이다. 이것이 최종 결과”라며 자신의 탄핵소추안 부결 소식이 1면 헤드라인에 실린 워싱턴포스트(WP) 신문을 들어보이 기도 했다.

강혜진 기자

## 美 감리교, 특별회의서 분리 계획안 지지 여부 결정기로 “교단의 미래 위해 모든 좋은 선택권 고려해야”



지난 2019년 2월 14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아메리카 센터에서 열린 특별회의 모습. ©미연합감리회

미국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 이하 UMC)가 LGBT 문제와 관련한 분리 계획안 지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특별회의를 열 계획이다.

데이비드 바드(David Bard) 주교는 6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오는 3월 7일 미시간 주 연차총회에서 특별회의를 갖고, LGBT 문제와 관련한 분리 계획안 지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총대들이 이 경제적 기간, 교단의 미래를 위한 모든 좋은 선택권을 고려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바드 주교는 “이번 특별회의는 계획안의 합법화 요구가 아닌, 이에 대한 찬반 투표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UMC 교회 지도자 1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분리를 통한 화해와 은혜의 프로토콜’이라는 제목의 계획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분리 과정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교회들은 교회 건물 등 교단 자산에 대한 권리를 포

기하는 대신 향후 4년 동안 2,500만 달러(약 290억 원)를 받게 된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UMC 내의 다양한 관점과 지역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동 관심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각자의 신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5월 5일부터 15일까지 미네아폴리스주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교단 총회에서 합법화 과정을 밟게 된다.

UMC 내 보수 성향 그룹인 웨슬리언 약회(WCA) 톰 앤더슨(Tom Anderson) 대표는 특별회의를 열기로 한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시간 주 연차총회의 특별회의 개최를 지지한다. 미시간은 교단에 소속된 교인들에게 시민적이고 냉철하고 희망적인 미래를 향해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우리 모두 금식하며 새로운 날의 시작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 새들백교회 설립 40주년, 성공 요인은 관계, 환대, 지역 사회 봉사



릭 워렌 목사(오른쪽)와 케이 워렌 사모. ©새들백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잘 알려진 릭 워렌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미국 새들백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이해 기념행사를 치렀다.

‘처치리더스닷컴’에 따르면 새들백교회는 지난 9일 캘리포니아 레이크 포레스트에 위치한 메인 캠퍼스에서 4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보도에 따르면 14개의 위성 교회에 출석하는 수천 명의 교인들이 이 행사에 참석해 친교를 비롯해, 가족 활동 및 교회의 역사에 대한 영화 상영을 즐겼다. 새들백교회가 설립한 4개 국제 캠퍼스의 특별 손님도 참석했다.

이와 더불어 예배 팀의 공연과 현재와 과거의 봉사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으며 40주년을 기념했다. 손님들은 추첨 경품, 애완 동물 동물원, 관람차 및 집 라인을 운영하는 부스에 방문할 수 있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새들백교회는 지난 1980년 릭 워렌 목사와 케이 워렌 사모가 인도하는 성경공부 그룹으로 시작됐다. 첫 예배는 그 해 부활절에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그 이후로 새들백교회는 5만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한주에 평균 3만여명이 출석했다.

릭 워렌 목사는 지난 2005년 타임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 100인’에 올랐다. 케이 워렌 사모는 지난 2013년 아들 매튜의 자살 이후 ‘정신 건강 옹호자’로 활동하고 있다.

릭 워렌 목사는 새들백교회를 시작하면서 한 곳에서 장기적으로 머무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는 ‘OC 레지스터’와의 인터뷰에서 “케이와 저는 25살 때 한 곳에서 40년을 보낼 것과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면서 “기독교 단체, 신학교 및 교단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직업을 제안받았다. 하지만 모두 거절했다. 올해 첫 예배에서 이 약속을 지켰음을 알게 됐다.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들백교회의 성공 요인에 대해 “관계, 환대, 지역 사회 봉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처치리더스닷컴’에 따르면 올해 기념일을 준비하며 새들백교회는 ‘담대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개최했다. 지난 2일 ‘2020 비전’ 메시지를 통해 릭 워렌 목사는 다양한 고통을 지원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회복 센터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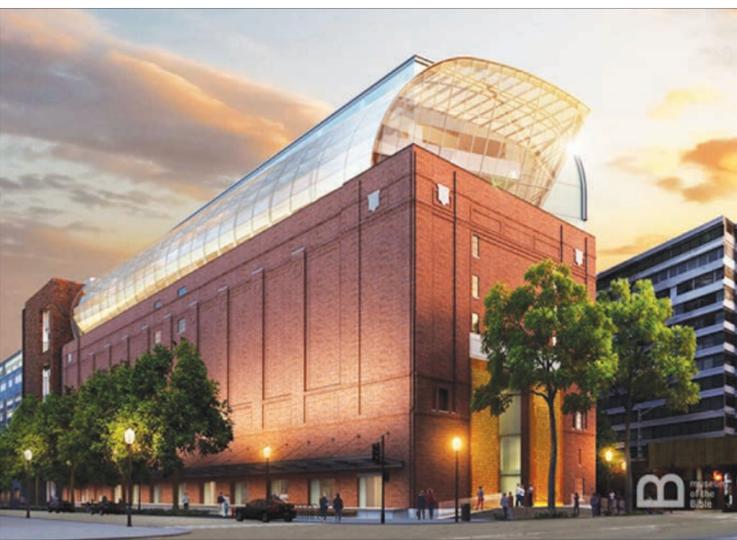
릭 워렌 목사는 “미래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을 예측하기보다 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결혼 문제를 겪을 것이며 여전히 외로울 것이다. 여전히 인생의 목적을 알기 원할 것이라며 우울증, 두려움, 쓴 뿌리, 질투와 관련된 문제가 여전히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이다.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을 다룬다면 항상 관련이 있다”고 했다

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 하비라비 CEO “내 사명, 성경 이해하고 교육하도록 돕는 것”

미국 41개주 530여개 지점... 성경박물관 설립에도 공헌



워싱턴 D.C.에 세워진 성경박물관 조감도. ©www.museumofthebible.org

워싱턴 D.C.에 위치한 성경 박물관을 짓는데 공헌한 미국 대형 공예품 회사인 ‘하비라비’ 스티브 그린 회장이 “성경은 나의 삶과 사업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그린 회장을 인터뷰한 크리스천헤드라인닷컴에 따르면 그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교육하도록 돕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미국 대형 공예품 도매회사인 ‘하비라비’(Hobby Lobby)는 미국 41개주에 530여개 지점을 두고 있고 약 2만 5천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그린 회장은 하비라비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며 많은 돈을 선교와 자선에 쓰고 있다. 또 주일에 상점을 닫아 직원들이 안식하도록 하며 크리스마스나 독립기념일마다 회사의 신앙을 공개하는 전면광고를 신문에 실는다.

그린 회장은 최근 새로운 저서 ‘이 아름다운 책’(This Beautiful Book)을 출간했다. 그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밝히며 “성서를

사랑하는 이유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면서였다”고 했다.

그린 회장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성서에 관한 새 책을 저술하고 지역 교회의 주일 학교에서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서 “목회자이신 조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했다.

또 그린 회장은 성경 박물관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애초 다른 박물관을 개발하기로 했지만 가족들은 성경박물관 프로젝트가 그들이 해야 할 일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린 회장은 성경 박물관 프로젝트를 이끌 때 직면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성경을 최대한 이해하고 그들의 삶에서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주동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주동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지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찬양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진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피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현**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이동진**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월린예배 오후 1:30  
이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라(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방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 분당  
EM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학교 오전 11:30 분당  
KM찬양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 분당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분당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리심으로 오묘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310)370-5500 / www.torranceccg.org

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1부), 6:30(2부)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310)715-9902

## O. 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모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성경통독모임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주동부 오전 11:00  
Youth/College 오전 11:00

**이명이** 담임목사

**UBM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

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336-8995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영아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찬양(월-토)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중등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거지 예배 매일 4주 주일 오후 5:30(토)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벤틀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예수 생으로 영생을 살리는 생애공동체 ALL IN JESUS 4-계 2-계 2-계 2-계 2-계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cf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령 새음 복음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주동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교회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목요저녁예배: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설모임: 매달 둘째 및 셋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bsc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988-3321, (562) 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상사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보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 749-7770 www.saemmoor.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중**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름새를 배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8: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장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아)

**김인철**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하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하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강부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최성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아)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 646-9259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영아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668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영웅”故 리원량, 기독교인 아니다  
지나친 미화 경계



©리원량 웨이보 캡처

목원대 이희학 교수  
“순교자” 표현 조심,  
오히려 불교 용어 많아”

우한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린 의사 리원량(李文亮)이 사망 직전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전해지면서,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그에 대해 ‘신실한 기독교인’ 혹은 ‘순교자’로까지 영웅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는 의견이 거론되고 있다.

목원대학교 이희학 교수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그의 글에서 사용한 용어에는 불교적 색채가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으로 번역된 상제(上帝)라

는 단어는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주로 신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 더욱이 ‘모든 사람’을 뜻하는 창생(蒼生)이라는 단어는 불교용어로 기독교인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고 말했다.

리원량은 편지에서 “나의 묘지명은 한마디로 충분하다”며 “그는 세상의 모든 이를 위하여 말을 했습니다(他爲蒼生說過話)”라고 남겨 달라”고 메시지를 남긴 바 있다.

이 교수는 또한 리원량의 “저승으로 가는 다리를 건너기 어렵다”라는 표현에 대해 “이승과 저승을 갈라놓는 다리가 있으며 이승으로 절대 넘어올 수 없다는 내용은 완전한 불교 용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의 업적은 훌륭했으나, 자칫 순교자로 잘못 알려져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의 메시지가 아내를 통해 전해졌다는 것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경호 기자

홍정길 목사  
“文 취임 후 3년... 너무 고통스럽다”

“나라를 위한 기도모임: 말씀과 순명” 첫 기도회 은누리교회서 열려



설교하는 홍정길 목사

여러 가지 사회 갈등으로 삶의 현상이 험악해지고 있다. 올해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런 상황을 악화시킬 것 같아 걱정”이라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며 이로써 사회적 책무도 짐 지고 있는 목회자들의 기도가 절실하다. ‘말씀과 순명’이란 주제를 품고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모두 10번의 기도 모임을 갖는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평일 오전임에도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기도모임에서는 홍정길 목사(삼서울은혜교회 원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대하 7:14)’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홍정길 목사는 설교 말미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기껏해야 30년이 되지 않는다. 전 세계를 돌아다녀봐도, 실제로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통 크게 경험한 나라가 거의 없다”며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셔서 용납해 주신 주님의 은혜”라고 전했다.

홍 목사는 “우리는 이번 4월 15일날 투표한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 봐도, 이번 선거는 너무 중요하다”며 “이제까지의 선거는 대부분 좋은 사람, 친한 사람 뽑는 선거였다. 정강정책을 보고 어떤 정당을 선택해야 할까 하는 선거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그것을 넘어서는 한 가지 선택을 더 해야 한다. 체제를 선택해야 하는 선거”라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취임 당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선포했다. 그리고 3년이 시간이 흘렀다.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홍정길 목사는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총선 이후 정국 구상을 말하면서 제시한 것들은 다 사회주의 정책이었다”며 “그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 있다. 유럽에서 일단의 사회주의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고통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체제를 다시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사실 사회주의도 경험해보지 않았나”라며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역사적으로 딱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기록된 이상향의 세계이고, 또 하나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빅브라더’가 정보를 완전히 차단해 모든 사람을 로봇처럼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회”라고 지적했다.

홍 목사는 “저는 ‘1984’의 사회가 실현되지 못할 줄 알았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같은 것일 줄 알았다. 그런데 AI가 발달해 인면인식 기술뿐 아니라, 얼굴을 몰라도 몸짓만 보고 찾아내는 기술까지 생겨났다”며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다. 어떤 나라가 될지 우리는 잘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4월 15일까지 이런 문제들을 놓고, 눈을 부릅뜨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체제로 전 달될 수 있는지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며 “하나님 말씀에 비춰, 어느 것이 더 살이게 신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지 선별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정길 목사는 “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차단하고 있는 이 죄의 장벽이 무너져야 한다. 하나님을 떠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며 “우리 목사들부터 나의 죄를 내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 키(key)는 여기 있다. 민주당에도 한국당에도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서자. 그 역사의 키는 하나님”이라고 역설했다.

홍 목사는 “손바닥 바꾸듯 역사를 마음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가? 왜 그 분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불안해 하는가”라며 “우리는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을 다시 마음으로 되새길 뿐 아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선포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하시는 분은 정치하도록, 운동하시는 분은 운동 열심히 하도록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앞어지자. 이곳뿐 아니라 곳곳에서 깨어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 기도 했으면 좋겠다. 기도보다 앞선 일은 안 되지 않는가”라고 설교를 맺었다.

설교 후 참석자들은 유기성 목사의 인도로 함께 기도했다.

이대용 기자

# 청교도 이민 400주년 | 기독교 영성 회복의 길 <제3편>



미국의 시작의 상징 메이플라워호

## 메이플라워호는 어떤 배인가?

1)1620년 9월 6일, <윌리엄 브래드포드>를 비롯하여 레이든에서 돌아온 분리주의자 35명과, 이들의 친척과 친구들 및 그 외의 몇몇을 포함하여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잉글랜드 남서부의 <플리머스>를 떠나서 신대륙을 향하여 출발했다.

<메이플라워호>에 관한 기록은 16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이플라워호>는 노르웨이의 발틱 해로부터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의 유럽 나라들과 영국 사이에 주로 포도주를 비롯한 화물을 운반하는 화물선이었다.

배의 제원에 관해서는 많은 것이 알려져 있지 않다. 무게는 180톤 정도, 길이는 27.4 - 33.5m, 폭은 약 7.6m로 추정한다.

당시 배의 주인이자 선장은 Christopher Jones 였으며, 66일간의 어려운 항해를 거쳐 1620년 11월 21일 <케이프코드> 끝에 있는 낚시 바늘 모양의 <프로빈스타운> 항구에 닿을 내렸다. 항로를 이탈하여 항해한 탓에 예정보다 늦게 도착하여, 이미 겨울이었다. 배에서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혹독한 추위와 괴혈병으로 반 이상이 죽었다. 1621년 3월 31일 살아남은 자들은 <플리머스> 해안까지 이동했고, <메이플라워호>는 4월 15일 영국으로 돌아갔다.

그 후에 <메이플라워호>는 영국에 도착한 후에, <존스> 선장이 죽

고, 약 2년 동안 항해가 중지 되었으며, 배는 해체되고 목재로 팔려 나갔다고 전한다.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메이플라워호>의 항해 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유일한 보고서를 남겼다. 그가 남긴 기록을 조금 살펴보자.

-9월 6일, 모든 문제들이 잠잠해졌다. 선내에서 서로 단결되었고, 순풍을 맞아 바다로 나갔다. 이런 상태가 며칠 계속되었고 모두들 고무되었다. 해상 풍토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선원 중에 아주 고약하고 못된 젊은이가 있었다. 큰 덩치에다 아주 거만했다. 그는 항상 병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욕설을 심하게 해댔다. 매일 가혹할 정도로 저주를 퍼부었다.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바다에 던져버리자고 말했다.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저주를 해댔다. 하나님은 항해를 절반도 하기 전에, 이 젊은이에게 몹쓸 병을 내려서 그는 죽었고, 그가 처음으로 바다에 던져졌다.

-순풍과 좋은 기상 조건이 지나고, 세찬 바람과 폭풍을 만났다. 배가 심하게 흔들렸고 상갑판에 누수가 의심됐다. 선박 중앙의 대들보가 구부러지고 균열이 발생했다. 항해를 계속할 수 있는가에 대해

심하게 의견이 대립됐다. 선장은 항해에 자신이 있었으며, 할 수 있는 수리를 했으며 방수 처리를 했으나, 물은 또 섰다.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항해하기로 했다. 폭풍과 높은 파도로 전진할 수 없었고, 배는 며칠 동안 표류했다.

-폭풍은 거대했다. 배가 폭풍 속에서 표류하고 있던 중에 <존 하우랜드>라는 청년이 바다에 떨어졌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마룻줄로 걸어서, 바다 깊이 빠진 그를 올릴 수 있었고, 그는 의식을 잃지 않았고, 보트와 갈고리로 그를 건져 올렸다.

-길고 긴, 처절한 항해 끝에 <케이프코드> 만에 도착했다. 별로 기쁘지 않았다.

### 2) 메이플라워 서약 (Mayflower Compact)

신대륙에 도착한 <필그림 파더스>는 1620년 11월 20일 <플리머스> 식민지에 정착하기 전에 배에서 서약을 체결했으며, 41명이 이에 서명했다. 이들은( 모든 승객은 아니었음) 영국 국교회의 지배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기독교 신앙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까다로운 자들>(Precisions) 또는 <청교도들>(Puritans)라고 불리던 자들이었다. 서약의 원본은 분실되었으나, <브래드포드>가 기

록한 필사본은 남아있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래에 서명하는 우리는 대영제국, 프랑스 및 북아일랜드의 신, 국왕, 신앙의 수호자, 등등의 은총을 통해, 숭배하는 군주인 국왕 제임스 1세의 충실한 신민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진흥 및 국왕과 국가의 명예를 위해 버지니아 북부에 최초의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항해를 계획했고, 개척지에서 질서와 유지, 위의 목적의 촉진을 위해서 하나님과 서로의 앞에 엄숙하게 서로 계약을 체결하며, 우리 스스로 민간 정치체제를 결성할 것을 결정했다. 이것을 제정하여 우리 식민지의 총체적인 이익을 위해 식민지의 사정에 가장 잘 맞다고 생각되는 정당하고, 평등한 법률, 조례, 법, 헌법이나 직책을 만들어, 우리 모두 당연히 복종과 순종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계약은 이들을 계속 영국 왕의 신민으로 규정하되 자유를 보장하였다. 1691년 플리머스 식민주가 매사추세츠 주에 흡수될 때까지 이 계약은 그 식민주의 주정부 헌장으로 남았다. 그리고 이 서약은 다수의 자유 의지에 의한 정부의 설립을 규정한 것으로 미국 민주정치의 기초가 되었다.

### \*참고 문헌

1. 오덕교, 청교도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2002)
2. [https://ko.wikipedia.org/wiki/메이플라워호\\_1/7/2020](https://ko.wikipedia.org/wiki/메이플라워호_1/7/2020)
3. [https://m.cafe.daum.net/1kd37/N5V1426?q=D\\_apNt.NqpH5cOQ\\_1/7/2020](https://m.cafe.daum.net/1kd37/N5V1426?q=D_apNt.NqpH5cOQ_1/7/2020)
4. 조주석 외, 교회사 대사전 I (서울, 기독교지서사, 1994)
5. [http://ko.wikipedia.org/wiki/메이플라워\\_서약\\_1/7/2020](http://ko.wikipedia.org/wiki/메이플라워_서약_1/7/2020)



박중승 목사  
예심교회 동역목사  
WIW Ministry 사역

## 청교도 미국도착 400주년 기념 성경테마여행

###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청교도 미국 도착 400주년을 기념하여 기독교일보와 WIW Ministry에서는 미국역사의 시작점인 보스턴의 역사관광지 그리고 청교도가 미국에 정착한 역사를 볼수 있는 아름다운 바닷가와 마을들을 돌아보며 청교도의 신앙을 돌아보는 일정으로 안내합니다.

**날짜 : 5월 12일 / 5월 13일 - 선착순모집**

일정 : 플리머스 청교도 도착한 랜딩플레이스  
청교도들의 마을 " Plymouth Plantation "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Cape Cod 청교도 첫 도착한 항구  
400년전 모습으로 다시 복원된 메이플라워 호  
미국의 역사를 볼수 있는 프리덤 트래일  
동부의 아름다운 경치 감상

**\$479**  
+ 항공요금

**노아의 방주를 타다 !!**

날짜 : 3월 10일 / 4월 14일 / 5월 12일 / 9월 15일 / 10월 13일 / 11월 10일

일정 : 창조박물관 견학(천지창조, 예수님의 사역)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  
현대의 생활모습을 거부하며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신앙공동체인 아미쉬 마을  
클리프트 주립공원을 아름다운 경치 감상  
시카고 시내 관광

**\$519**  
+ 항공요금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청교도 미국도착 400주년**

날짜 : 9월 22일 / 10월 20일 / 11월 3일

일정 : 플리머스 청교도 도착한 랜딩플레이스  
청교도들의 마을 " Plymouth Plantation "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Cape Cod 청교도 첫 도착한 항구  
400년전 모습으로 다시 복원된 메이플라워 호  
미국의 역사를 볼수 있는 프리덤 트래일  
동부의 아름다운 경치 감상

**\$499**  
+ 항공요금

**필라델피아를 가다! 말씀과 역사를 따라서**

날짜 : 4월 21일 / 5월 19일 / 6월 9일 / 9월 8일 / 10월 6일 / 11월 10일

일정 : 레위기의 성막을 그대로 재현한 성막 체험  
기독교의 브로드웨이로 불리는 2000석 규모의 성경 뮤지컬  
미국 최대의 아미쉬 마을 방문  
펜실베이니아주의 아름다운 경치 감상  
믿음의 유산으로 세워진 프린스턴 방문  
미국의 역사를 볼수 있는 필라델피아 역사지구

주최 : 기독교일보    주관 : WIW Ministry, Bliss Travel    (714)681-6356, (213)434-1170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겨울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참,(진리의길) 앎,(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126학점
신학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Div 교역학 석사과정   96학점</li> <li>■ D.Min 목회학 박사과정 (NYTS)</li> </ul>

### 본교 지원시 특전

- 1)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 CNA | RN 시험준비영어반 학생모집

CNA, RN,채혈사 입시를 위한 영어 강의를 개설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36년간 영어교사를 하신 헨리김 선생님이 지도합니다.



헨리김 선생

CNA, RN 준비반 월,화,수 오후 2시~4시

채혈사 준비반 월,화,수 오후 4시 30분~ 오후 6시 30분

상담문의전화 818-624-9106  
213-272-6031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2020년 입학생 및 편입생 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 에서 입학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학사과정**  
(B.Th/B.A)  
126학점

**석사과정**  
(M.Div/M.A)  
96학점

**박사과정**  
(D.Min/Ph.D)  
48학점

**학생수시모집**  
등록상담전화  
310-678-6836  
213-249-6924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 TEL: 310-678-6836

### 사건 사고를 보는 바른 관점

얼마 전, 있었던 일입니다. 쉬는 월요일 마다 들르는 동네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자리에 어떤 중국인 남성 한 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로컬 커피숍이라, 웬만한 손님들 얼굴은 익숙한데, 처음 보는 낯선 분이셨습니다.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그런데, 특이하게도 비행기 기내용 캐리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순간, “혹시, 중국 우한에서 탈출한 분 아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에이 설마, 아니겠지”하며, 읽던 성경을 마저 읽어 내려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떤 백인 분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제가 재채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전까지 짐을 풀고, 분주하게 타이핑하시던 분이 급하게 가방 정리를 하고, 저와 가장 멀리 떨어진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억울하기도 하고, 앞서 의심했던 중국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은 발병환자가 극소수여서, 그나마 조용한 편이지만, 중국 주변 국가들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도 동양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레스토랑이나 상점은 손님이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합니다. 하루 빨리, 상황이 수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일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원인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필 박쥐를 먹어서 이

리냐?”라고 중국의 음식문화를 비난합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이번 사태가 중국이 수년 사이 지하교회들을 폐쇄하고 대대적으로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한데서 비롯된 하나님의 징계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일리 있는 말입니다. 들짐승보다 가축을 먹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그러한 불행에 타고난 원인이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중국에 다시 한 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 직분과 직위

“교회에서 제일 높은 분은 담임 목사님이지요. 그럼, 그 다음이 부 목사님이예요, 장로님이예요?” 부 목사 시절, 한 아동부 아이가 저에게 한 질문입니다. 아이들 시선으로는 교회의 직분이 지위로 보였던 것이지요. 어쩌면, 교회의 직분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도 그럴 것입니다.



안 성 복 목사  
다우니제일교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결코 지위가 아닙니다. 지위는 수직적인 개념이지만, 직분은 수평적인 개념입니다. 지위는 상하관계가 성립이 되고 계급이 나누어지지만, 직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등합니다. 지위는 특권이 있고, 그러므로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직분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있을 뿐입니다.

간혹 직분을 지위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고, 상대방을 아랫사람 다루듯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그 분들이 사실은 목사의 말은 더 안 듣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지위는 높을수록 편한 곳에서 일하지만, 직분은 받을수록 더 낮은

곳, 험한 곳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직분에 합당한 정신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건축을 하면, 직분자들이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예배당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당연한 희생이었고, 그 희생으로 모든 교인들이 존경과 존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희생 없이 존경과 존중이 아닌 특권을 누리려 합니다.

가끔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이 우리교회 주보에 제 이름이 없다고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주보 제일 앞에 담임목사의 이름을 넣는데, 우리교회 주보에는 주

보 뒷면 ‘섬기는 분들’ 가운데 가장 밑에 담임목사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자신은 교회 주보에 담임목사의 이름은 모든 교역자들 제일 밑에 두었다며, 목사는 교회 안에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본인의 신앙고백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 그래서 저도 그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교회 목회자들은 주차를 가장 멀리합니다. 가장 먼 곳에 주차할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권이 아닌 희생! 그것이 직분의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희생의 정신을 가진 직분자에게 구별함에 대한 존중도 잊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직분자 선거가 경쟁이 치열한 것은, 교회의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직분을 지위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직분은 지위가 아닙니다.

### 불안이 아닌 여유를 누리는 믿음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세계보건기구(WHO)가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지난달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고, 미국 국무부는 중국 전역에 대해 사실상 여행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매일 사망자와 감염자 숫자가 업그레이드되고, 감염자의 경로가 되었던 공공장소들이 임시 폐쇄되기도 하고, 수천 명의 승객을 태운 대형 크루즈에서도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여 각 나라로부터 입항을 거부당해 바다 위에서 2주를 머물며 감옥 같은 생활을 하기도 한다는 우울한 소식이 연일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증시도 계속 떨어지고 경제도 빨간불이 켜졌으며 중국으로부터 부품 공급이 중단된 한국의 현대차는 모든 승용차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마스크는 동이 나고,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기침이라도 하면 쳐다보거나 불안을 느낀 사람들은 자리를 피하기도 합니다.

조심하고 예방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밀려드는 부정적인 소식에 경제는 암울해 보이고 내일의 무엇도 보장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조리한 사회는 곧 무너질 것 같아서 당장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초조합니다. 사람들은 날이 서 있고, 감당하지 못할 분노들이 폭발 일보 직전처럼 생활합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들은 우리는 과민하고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설 새 없는 불안과 염려로 지쳐 있습니다. 이렇게 지친 마음은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별 일 아닌 상황에도 무슨 난리가 일어난 듯 안절부절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안이란 과거의 부정적이고 공포스러운 경험으로 인해 다시 그 일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 웬만한 일에는 의연한 어른이 될 것 같은데 부정적 경험의 누적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감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간접적으로도 부정적인 경험은 강력하게 전이될 수 있습니다. 우한 폐렴 소식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아예 안 나가고, 택배가 와도 ‘문 앞에 두고 가라’고 하는 포비아(공포)가 멸절한 일반인의 삶에도 전이된 것과 같습니다.

요즘은 빠르게 전달되는 미디어를 통해 각종 사건과 사고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불안할 일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한폐렴으로 감염되는 사람들의 소식과 취해지는 조치들을 보면 곧 지구의 멸망이 올 것 같습니다. 평범한 건강정보방송을 보아도 세상에 먹을 음식이 없고

조금 더 여유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든든한 반석 위에 인생의 터를 닦아야 합니다. 언젠가 멋진 오토바이만을 보고 뒤에 탔다가 혼이 날던 경험이 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렸는데 뒤에 앉은 저는 운전자를 붙잡고 울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면 보통 900km의 속도로 나는데도 맛있게 밥을 먹기도 하고 편안한 잠도 자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지는 없어져도 일점일획 변하지 않을 진리의 말씀 위에 인생의 터가 놓이고, 인생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로부터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더 넓은 곳으로

# 확장기념 플로어 30% 세일

수술 않고 해결합니다! 척추통증·좌골신경통

## 2020년형 전자동 전동거꾸리 Z-UP

영국의 뉴캐슬 대학에서 임상실험으로 허리 수술을 예정했던 환자의 80% 이상이 척추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후 유럽에서는 척추질환 치료 DP수술 대체 치료로 Z-UP 전자동 전동거꾸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디스크는 반듯하게 제자리로 가라!

### 하루 5분

허리 통증, 손발저림 통증, 모든 통증을 없앨 수 있습니다

월~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 무료 체험

허려 오세요

“이 전역 딜러 모집” 자기방어용 신변보호장치 전기충격기!!!

“지난 20년간 한인타운 스테디셀러” 후지미 마사지체어 최초 플로어 세일

한국인 체형에 가장 맞는 마사지 체어 Massagechairtechnicians.com에서 2019년 미국 내 No.3

\*Fujimi.us의 GT 700 massagechair LOLC Edition 플로어 전시품에 한함.

LOLC Inc. | Tel. 213-700-8382  
For the Spirit & Body |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CBD Hemp Oil 제품으로  
대한민국 식약청 최초 수입승인 제품**

THC Free  
환각기능 없음

Dietary Supplement

# 햄프햄초환

대마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햄프햄초환은 예고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심장병,  
치매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탁월한 건강식품!  
당뇨 탈출, 숙면제거의 특효!

신이 내린 항암식물!

**혈관 청소!**  
치매 예방

**암 전이 예방!**  
당뇨 탈출

**면역력 증강!**  
숙면 제거



2달분  
1,800 환  
**\$250** +Tax

MANUFACTURED IN THE USA

##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CBD Oil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명한 자연치료제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노이드를 자극해 염증을 줄여주어 암, 뇌전증 치료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GLA는 **미국암협회가 강력 추천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성분이 없습니다. 만성통증, 불안증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웰빙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 햄초는 어디에 좋은가요?

- 1 높은 영양소의 보고**  
90여 가지의 바닷물 속 좋은 미네랄 성분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채소를 통해서 섭취가 어려운 요오드는 일일권장 섭취량의 약 8배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 2 장에 좋다**  
햄초는 장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변비를 해소하고 장내에 쌓인 숙변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장내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능도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전반적인 장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3 심혈관에 좋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과 혈관의 지방질을 배출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 4 당뇨에 좋다**  
햄초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주며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당뇨를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5 간에 좋다**  
햄초에 들어있는 콜린은 지방간이나 간경변 등과 같은 간질환을 예방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테인 성분이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줍니다.
- 6 항암에 좋다**  
햄초에 풍부한 게르마늄은 항암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 햄초가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보고 되었습니다.
- 7 식이섬유가 많다**  
햄초 100에는 약 7~8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시금치의 10배에 달하는 양이다.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는 혈당조절과 체중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린 성분이 장내 중성지방을 수용성 지방으로 바꾸어 체외로 배출시켜줍니다.
- 8 칼슘이 많다**  
햄초에는 100g 당 칼슘 235mg, 칼륨 650mg, 철분 40mg 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갱년기 여성과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 전반적인 뼈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 밖에도 항산화, 피부미용, 두뇌 활동 촉진 등이 있으며, 일본 오히라산장 난치병연구소 이토 소장의 보고서 '놀라운 햄초의 효능' 에 항염증, 항균, 감상선 기능 증진, 기관지 건강 개선, 근육통 완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Low Sodium Salt 天然 低鹽

BAJA SEA SALT

**코셔미네랄 천일염**

99.70% 미네랄 소금  
최상급 천일염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친환경 천일염으로 최고의 품질과 Kosher(코셔) 인증을 획득하여 미국과 유럽이 인정한 제품입니다.

바하천일염 4대 미네랄	일반 가공소금이 문제!
나트륨 Na : Cl	(정제염 - 요소염, 맛소금)
칼륨 K : Cl	나트륨 (Na)
칼슘 Ca : Cl	의사들이 소금을 먹지 말라는 이유는 나트륨만 들어있는 소금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그네슘 Mg : Cl	

중금속  간수

515g **\$30** +Tax

바다의 산삼!

BAJA GLASSWORT POWDER

**바하햄초분말**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햄초! 바하햄초분말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세요!

풍부한 식이섬유  
아미노산, 무기질  
해양미네랄 함유!!!

150g **\$30** +Tax

(213)386-3896

바하천일염, 바하햄초분말 도.소매 판매합니다.

이음헵프카페 전시판매장

중앙일보

120세 시대에 건강 동반자

1달분 **\$170**

목회자 50% 할인

Dietary Supplement  
**HEMP PLUS+**

2 TIMES A DAY (15 PILLS)  
TOTAL (900 PILLS)

CBD는 신경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신경발생 즉 신경계 조직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CBD가 악화되는 알츠하이머 병의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TheHempPlus.com**  
hempplusorder@gmail.com

올가늌 건강기능식품  
알츠하이머·파킨슨·각종 암 예방 포물라

# 햄프플러스

**알츠하이머 병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침착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CBD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항산화, 항염증 그리고 신경보호 및 재생촉진 효과를 보여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출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CBD는 뇌의 수용체에 작용하여 정신 질환 및 신경계 치료에 다양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킨슨 병에는**  
체내 도파민 합성과 손상의 감소, 신경보호, 정신병적 등급향상과 환자의 약물, 공격적 행동 감소의 효능이 있다.  
커큐민(Curcumin)추가로 치매의 큰 원인중 하나인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으며 도파민 및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켜 준다.

**TheHempPlus.com**  
RopheCentum, Inc.

세계 보건기구(WHO)가 밝힌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 각종 암 예방에 효과적인 CBD를 햄프플러스로 경험하세요

# 공산주의와 교회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김인수 목사  
전 민주장신대 총장

1917년 러시아에서는 브라드미르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로마노프 왕조의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를 처형하고 공산당 혁명을 성공시켰다. 이때부터 공산주의 사상이 들불처럼 각처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였다. 특별히 이 사상은 무산대중과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호소하여 급속도로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레닌은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에 대한 지원을 선언했기 때문에 뜻있는 한국 지식들과 민족주의자들에게는 복음으로 들리게 되었다.

3·1 독립운동 후 일제가 문화 정책을 표방하고 나서자, 각종 새로운 사상과 지식이 한국에 밀려들어왔고, 이에 편승하여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사상이 한국에도 소개되고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상은 주로 북으로 이주해 간 이주민들의 내왕과 유학생들에 의해 유입되었다. 한국이 일제의 식민지로 10여년을 착취당하고, 더욱이 3·1 독립운동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을 때, 이 사상은 적지 않은 지성인들과 뜻있는 사람들에게 달콤한 메시지가 되었다.

기독교가 주축이 되었던 독립운동에 대해 미국이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그들의 눈길을 새로운 세력으로 다가오는 공산주의와 소련이라는 신흥대국으로 돌리게 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른다.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사상이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는 과격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고 민족의 염원인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가왔다. 따라서 이들은 이 궁극적 목적을 위해 민족주의자들과 손잡고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상은 처음부터 무신론적 이데올로기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 사상의 파급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 교회는 이 땅에 민족교회로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위기는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가 아니고 우리 민족 자체에서 온 위기로, 사상적, 이데올로기적 위기였다. 공산주의는 지금까지 기독교가 겨냥했던 일반 대중과 하류층에 파고드는 무서운 사상적 적대 세력이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파고들어가 전도해야 할 대상을 공산주의가 대신 침투하여 그 사상을 불어넣고 기독교에 등을 돌리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함으로써 기독교 전도에 커다란 거침돌이 되었으며, 또한 무서운 적대 세력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사상이 한국인들 사이에 퍼져 나가면서 연해주(러시아 영)의 이동휘, 김립, 박진순 등이 중심이 되어 1918년 6월 10일 '한인사회당'을 결성하였다. 이것이 조선인이 만든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이다. 한인사회당을 이끌었던 이동휘

가 후에 상해의 임시 정부에 참여하면서, 이들의 근거지가 상해로 옮겨졌고, 이와 더불어 사회주의 비밀결사인 사회혁명당의 김철수, 이봉수, 장덕수 등이 함께 1920년 5월에 '고려공산당'을 결성하였는데 이들을 일컬어 '상해파 고려공산당'이라 부른다.

한편 러시아령 바이칼 호 근처의 한인들 기반으로 한명세, 김철훈, 김하석 등이 1919년 1월 '이르쿠츠크 한인공산당지부'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1919년에 창설된 국제공산당인 코민테른 지원 아래 같은 해 9월 '전러시아 한인공산당'을 결성하여 시베리아 일대의 한인공산당 운동을 이끌었다. 후에 상해의 여운형, 안병찬을 포함하여 '통일고려공산당'을 결성하였는데 이들을 일컬어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라 부른다. 후에 김단야, 박현영, 조보암 등이 이르쿠츠크 파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국내에 이 운동이 유입된 것은 일본으로부터였다. 일본에 유학했던 변희용, 조보암 등이 그곳에서 사회주의 사상에 접하면서 국내에 본격적으로 유입시켰다. 이들에 의해 '북풍회', '화요회', '토요회' 등의 사회주의 단체가 서서히 머리를 들고 일어났다. 그들은 당면 목표를 민족독립에 두고 일제의 자본주의를 박멸하기 위해서는 전 민족이 유, 무산을 가릴 것 없이 뽄뽄 뭉쳐 된다는 공산주의 사상을 유포시키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25년 4월 17일 아사원에서 김재봉, 조봉암, 박현영 등이 주동이 되어 '조선공산당'을 조직하였다.

공산주의 사상이 한국에 소개되면서 기독교 신앙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과 기독교 신앙을 가졌

던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민족의 독립을 위해 나서지 않는다고 판단한 지도자들 중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들 중 대표적인 사람이 함경도에서 순회 전도사로 일했던 이동휘였다. 그는 1904년 기독교에 입교할 때 "기독교야말로 쓰러져 가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후에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1918년 6월 러시아 땅 하바로브스크에서 '한인사회당'을 창당하였고, 이듬해 4월에 블라디보스톡에서 '고려공산당'을 창당하였다. 김 구 선생이 쓴 「백범일지」에 보면 이동휘는 민족주의자라기보다는 철저한 공산주의자였고, 상해 임시 정부에도 지을 수 없는 큰 손실을 끼친 인물이었다.

한인공산당도 여러 갈래가 있었는데, 이동휘를 수령으로 하는 상해파, 안병찬, 여운형을 두목으로 하는 이르쿠츠크 파, 그리고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일본인 북변화부의 지도를 받는 김준연 중심 엠엘(ML:Marx - Lenin) 당파 등이었다. 그 외에도 이을규, 이정규 형제와, 유자명 등이 중심한 무정부주의 파(아나키스트), 심지어 공산주의에 충실하여 자본주의 사상에 찌든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살부회(殺父會)가 이상룡의 아들에 의해 조직된 사실을 김구 선생이 그의 [백범일지]에 기록했다. 이들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지는 못하고 서로 상대방의 아버지를 죽이자고 결의하기도 했다. 우리는 여기서 공산주의의 실체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공산주의가 기독교와 같이 일하려는 모습을 보인 때도 있었다. 그 한 예로 새문안

교회 장로였던 김구식이 평양 장로회신학교에서 공부했고, 중국 남경 금능대학 영문학부에서도 공부한 서울 송동교회 전도사 여운형과 같이 192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차 극동 피압박 민족대회'에 '기독교도 동맹' 이름으로 참석했다. 이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잘 몰랐거나, 공산주의가 의도적으로 가면을 쓰고 기독교 속에 침투해 왔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출발부터 그 이념이 다르다는 점을 이광수는 1931년 「청년」지에 잘 묘사하고 있다. 1. 기독교는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부르주아들에 대해 증오하라'고 요구한다. 2. 기독교 혁명은 계급 권력과 적대감이 사랑으로 만나는 곳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고통에서 발견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혁명은 적대계급에 대한 폭력적 파괴를 의미한다. 3. 기독교는 십자가로 그 군대를 결속시키나, 마르크스-레닌은 총으로 결속시킨다. 4. 기독교 혁명가들의 눈은 사랑과 용서의 눈물로 가득 차 있으나,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의 눈은 증오와 복수의 불길로 가득 차 있다.

이광수의 이 분석은 교회와 공산주의 사이에는 결코 합할 수 없는 이념적 간격의 골이 너무 깊고 넓은 사실을 잘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그들이 희생시킨 자들의 피로 강을 이루게 한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자신의 피로 강을 이뤄야 하는 점에서 다르다."고 말한 대목에서 극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 연재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동죽선교  
박상원 목사

### ■ 제1장 악질 빨갱이가 주님의 선택을 받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리라고 결심한 뒤 순례의 길을 달려온 지도 16년이란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

이 세월 동안 내가 분명히 깨달

은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은 인간의 두뇌 속에서 생산되는 생각을 입술이나 몸동작을 통해 이뤄지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다. 생명 운동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생각은 사탄의 생각일 수 있으므로 생각과 말과 행동은 믿을 것이 못되기 때문이다.

의롭고 성결한 생각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고, 더럽고 추악한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설쳐 대던 지난날 중에는 사탄이 준 생각을 성령님이 준 생각으로 착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도 했음을 고백한다. 제 판에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고 열심을 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열심일 경우 본의 아니게 악인의 길로 달려갈 수 있음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

게 되었다.

모세가 바로의 딸의 양아들로서 애굽 궁정에서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부문을 통달했듯이, 나는 북한의 공화국 정권을 지키는 일선에서 북한의 정치와 경제, 문화, 군사에 이르는 전 부문을 완벽하게 습득한 사람이다.

지난날 사탄의 선택을 받아 결사반공을 부르짖던 악질 빨갱이가 오늘날 주님의 선택을 받아 바울 사도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 힘써 전파하고 있으니, 주님이 내 인생에 베푸는 기적 중 가장 큰 것은 내가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이것을 설명할 도리가 없다.

나는 내 스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인 것이

절대 아니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선언한 1996년, 나의 믿음은 고작 사도신경과 십계명, 주기도문을 암송한 것이 전부였다. 이런 나

를 주님은 훈련하시고 인도하시어서 오늘날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린다.(계속)

###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화성도들의 손글씨로 이루어진 이 책은 기적같은 여정이었고,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열매이다.

• 책크로대행: GBMW 모든 기부금은 새문안교회에 배부되는 새문안수용을 발부해 드립니다.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 (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ATS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최인근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회(IS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온라인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영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성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속고교사,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 (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 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신학교(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회비 : 월 \$10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이동희 원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킨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정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혁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정호 목사
380면 / 15,000원
www.qumran.co.kr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6 ☎ 02-747-1004

# 美 복음주의 크리스천 목사가 본 영화 <기생충>

## TGC 리뷰 '우리 각자의 기생충' 화제

최근 한국계 줄리어스 김 대표가 취임한 미국 복음연합(TGC)에서,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에 대해 소개했다.

아카데미상 시상식 전인 지난 1월 말 게재된 이 리뷰는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 'True North Church' 한국계 유진 박(Eugene Park) 목사가 작성했다. 미국 복음주의 크리스천 입장에서 본 영화 <기생충>에 대해 번역 소개한다. (스포일러가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집자 주)

### 우리 각자의 '기생충' The 'Parasite' in Each of Us

봉준호 감독의 영화들은 유머와 서스펜스, 미스터리, 공포를 완벽하게 혼합한 예측할 수 없는 모험을 선사해 준다. 그리고 영화 <기생충>은 그의 최고 작품이다.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에 오른 것은 한국 작품으로서 최초이자 최고의 기록이다.

(거기에 작품상과 감독상, 국제영화상과 각본상까지 주요 4개 부문에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편집자 주) 그리고 미국에서의 기록적인 관객 행진, 그리고 이미 많은 상들을 받음으로써 세계적인 문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영화 <기생충>은 어떤 점에서 깊은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을까? 아마도 직직하고 불안정한 인간 본성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생충(parasite)'이라는 제목은 영화의 줄거리를 완벽하게 요약해 주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빌붙는 거머리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봉 감독은 기생충이 이물질이나 특정 장소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도 살아 존재함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듯하다.

### 욕망의 기생충 Parasite of Desire

봉준호 감독의 모든 영화는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 존재하는 사회적 긴장을 탐구해 왔다. <옥자>나 <

설국열차> 등의 작품들에서는 특정 지역이 아닌 공상 과학 또는 환상적인 곳이 배경이었지만, 이번 <기생충>은 대한민국이라는 지역의 서울 속 대조되는 두 환경에서 살아가는 두 가족(각 구성원 4명)에 중점을 둔 드라마이다. 빈곤층 김씨 가족은 부유층인 박씨의 집에 서서히 침투한다. 영화는 유머러스한 혼돈을 거쳐, 결국에는 재앙의 바다에 다다른다. 김씨 집안의 '기생충'스러운 방식과 끔찍한 가난은 영화의 오프닝 장면부터 부각된다. 그들 4인 가족은 우중충한 반지하 건물에 살고 있고, 환기가 되지 않는 집은 소독 트럭이 지나가면 자욱한 연기로 가득찬다.

김기택(송강호)의 장남 기우(최우식)는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석(壽石)'을 선물한다. 이 '돌맹이'는 가족이 오랫동안 원했던 행복과 재산, 부(富)를 가져다줄 것 같았다. 그러나 하이라이트 신(scene)에서 그 '수석'은 물에 잠긴 집에 동동 떠오른다. 모두 가짜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 모습은 아버지 기택을 비롯한 가족의 정교한 사기와 일치한다. 그 사기란, 그들의 신분과 재산 상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계약이었다. 결국 흥수로 집을 잃어버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우는 수석을 움켜쥔 채 말한다. "이것(수석)은 계속 내게 달라 붙어있다." 이 둘은 우리 영혼에 기생하는 욕망을 상징한다.

영화는 우리의 욕망이 막 실현되기 시작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우리 욕망이 성취되고 채워진다고 해도 우리 영혼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서야 깨닫는다.

그 욕망은 우리 영혼에 빌붙어, 우리를 말라 비틀어지게 할 뿐이다. 영화의 마지막, 피바다에 기우를 때려 눕히는 것이 그 '수석'이라는 점은 매우 적절했다. 잠언 27장 20절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대한민국 서민들의 비틀린 심성을 가감없이 다룬 수작이다.

### 비교라는 광기 Madness of Comparison

기생충적 욕구는 주로 비교에서 비롯된다. 영화에서 봉 감독은 김기택과 박 사장 집안을 생생하게 대조시켜 이를 명백하게 묘사해 준다. 이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다수 부문 후보자에 오른 것은 당연하다. 영화 속 두 집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캐릭터다.

김기택의 집을 보여줄 때, 카메라는 계속해서 아래로 움직여간다. 그들의 반지하 집에서 도로는 항상 자신들의 위에 보인다. 그들의 경제적 인 사정도 그렇게 고정돼 있다.

반대로 박 사장(이선균)의 저택은 말 그대로 웅장함을 자랑하는 '언덕 위의 집'이다. 박 사장의 집에 들어가려면, 마치 날아 올라가듯 계속해서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 그들의 집에서는 김기택이 사는 우중충하고 불결한 거리가 보이지 않는다. 푸른 초원이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내려다 보이는데, 가족들은 그곳을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다.

김씨 가족의 탐욕은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친숙하다. 우리는 소셜 미디어(SNS)가 보여주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매일 일종의 '충격'을 받고 있을 것이다.

오프닝 장면에서 기우와 기정 남매가 (반지하라 터지지 않는) 휴대

전화 안테나를 필사적으로 찾는 모습은 그래서 더더욱 적절했다. 그들은 오늘의 우리처럼, '디지털 경험'에 중독적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것은 결국 '욕망하는 기생충'처럼,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로 계속 무언가를 찾아 헤맨다.

그러나 이 영화는 우리의 생각을 크게 비튼다. 봉 감독은 우리를 비교의 광기와 파괴와 직면하게 했다.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비교 게임은 쓸데없다. 무의미한 반복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계급 상승이 다른 이들의 내어쫓김을 의미한다면, 오르막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끝으로, 영화에서는 부자와 빈자 중 누가 더 행복한지 전혀 분명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결국 '우리'와 '그들' 사이의 뚜렷한 대조는 '만들어진 차이'에 불과했던 것이다. 우리는 외적으로 보이는 가식적 행동으로서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사실 다르다기보다는 비슷하다.

### 타락의 평등 Equality of Depravity

영화 <기생충>은 주인공과 악당(?)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더 강력하게 우리의 기억 속에 마치 기생충처럼 머무른다. R등급을 받은 이 영화는 모든 인간, 심지어 '영웅'

조차 악과 그리 멀지 않다는 가혹한 현실을 드러낸다.

사실 성경 전체에 걸쳐 이러한 진실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Mike Cosper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죄인 또는 성도임을 이해하는 것이, 그 둘의 혼합임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쉽다."

기택의 가족은 '사다리 꼭대기'가 더 명예롭고 도덕적인 삶을 줄 수 있으리라 믿었다. 실제로 기우의 어머니 충숙(장혜진)은 박 사장 가족에게 "(부자인데도 착한 것이 아니라) 부자라서 착한 것"이라고 말한다. (돈이 주름살을 짹짹 피운다며)

그러나 우리는 영화가 끝날 때쯤, 두 가족 모두 그들이 추구하는 명예를 얻지 못했음을 알게 된다. (위층과 아래층의 상태를 모티브로 하는 영화에서 말 그대로) 상류층이든 하류층이든, 더 많은, 더 나은 또는 다른 것을 원하는 '욕망의 기생충'이 여전히 숨어 있다. 업적과 지위는 죄의 본성의 중심 문제, 즉 기생충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게 된다.

영화 <기생충>이 말해주듯, 타락은 보편적이다(Depravity is universal). 암울한 메시지이지만, 이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희망을 설정하는 메시지가기도 하다.

모든 가로대가 사다리에 걸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주어진다. 세상적 지위가 어떠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 똑같이 '죄인'이다.

부유함이나 좋은 집, 고용인들을 통해,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다. 그러나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우리 인생의 사다리가 아무리 낮은 곳에 있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대용 기자



수석을 바라보는 기택.



안테나를 찾는 기우와 기정.

교회행사, 수련회, 단체를 위한  
**맞춤형 후드 티셔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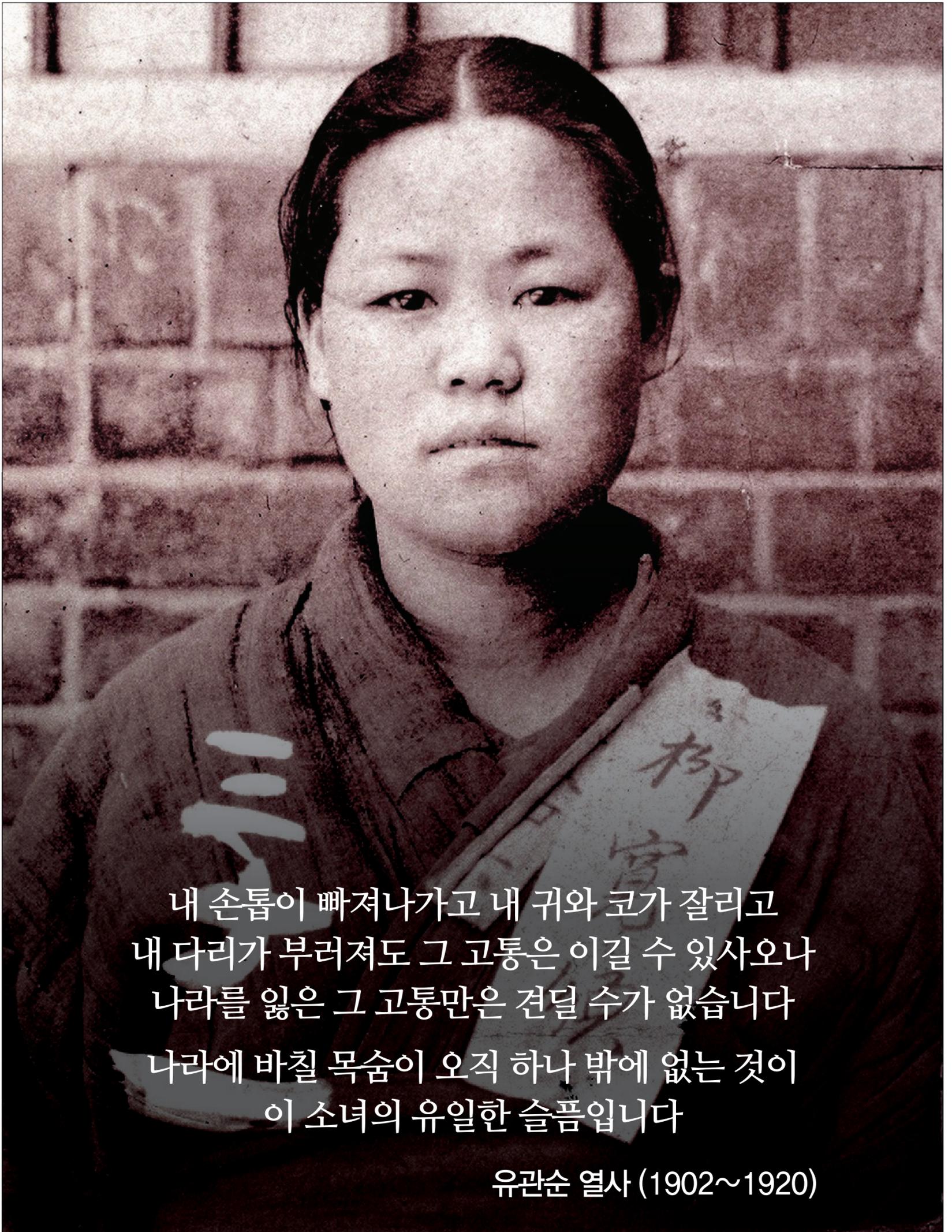
원하시는 문구와 로고를 넣어서  
우리교회만의 후드 티셔츠를  
예쁘게 제작해보세요!

WHEN WE PRAY

그레이  
블랙  
네이비  
차콜

할인 이벤트

25개	\$ 19.5 (개당)	only \$15.99 (개당)
50개	\$ 18.5 (개당)	
100개	\$ 17.5 (개당)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은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 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 열사 (1902~1920)

# 삼일절이 다가옵니다

잔악한 일제에 맞서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우리 선조들 -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지금 너무도 많은 일본 제품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삼일운동의 시발점이 된 이곳 미국에 사는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애국심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이 캠페인은 일본산 원료를 전혀 쓰지 않는  
 독립운동가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총판 셀리온 제품입니다



**CELLREON**



*New Origin*